

# 광주시 재난관리 최하위권

소방청 평가 결과 … 16개 시·도 중 15위

인명피해 최소화·관심도 등서 점수 낮아

광주시가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16개 광역 시·도 중 1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의 2007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평가(10%), 하반기 평가(55%), 수시평가(15%), 업무평가(20%) 등으로 구성된 이번 평가 결과

과, 경남이 9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충북 90.8점, 부산 90.1점, 경기 88.5점, 강원 88.3점, 경북 88.0점, 충남 85.1점, 전남 83.3점, 대전 82.0점, 전북 78.9점, 대구 76.4점, 인천 73.6점, 울산 73.0점, 제주 71.6점 순이었다.

광주시는 2007년 상반기 평가의 경우 상황관리 체계 확립(20점)과 민관군 협조(15점), 재해구호 대책(10점)은 모두 만점을 받았지만 인명피해 최소화(5점) 평가에서 2점을 받았다.

광주시는 하반기 평가에서도 행정,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여수박람회지원 특委 본격 가동

국회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민주당 강봉근 의원을 선임하고 민주당 간사로 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간사로 김재경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로 이영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서갑원·우윤근·강성종 의원, 한나라당 김선동·김소남·신지호·안형환·여성구·이정현·이종구·정의화·홍준표 의원, 무소속 이운석·이무영 의원 등이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총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2009년 8월 25일까지이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위 위원은 제2차 회의를 오는 27일 개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을 상대로 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위는 제3차 회의를 11월 중에 여수에서 개최한 뒤 박람회 부지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 업체

### 멜라민 검출 제품

#### 462kg 암류 폐기

광주·전남 지역 식품판매업소, 축·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절검 활동을 통해 멜라민 검출제품 461.9kg이 암류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열흘간 각각 식품판매업소 1천869곳을 점검, 멜라민 검출제품 3종류 11.9kg을 발견해 암류·폐기했다.

전남도도 같은 기간 축·수산물 관련 판매업소 4천535곳을 점검, 멜라민 검출 식품 11개 종류 150kg과 양어사료 1개 품목 300kg 등 총 450kg을 수거해 폐기했다.

시가 폐기한 제품은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터드가 5.8kg, 화통엔바방그(주), 한국마즈(주) 엠앤드эм스밀크, 뉴질랜드산 락토레린(1곳) 등 9개사 11개 품목(29건)을 폐기 처분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전남지역 비료 생산업체 2개소에 반입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퇴비사료 350t을 오는 13일까지 전량 반품토록 조치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이 내년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9.7%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유과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2006년 8월 조정 이후 동결됐던 고속버스, 시외버스(직행·일반) 운임을 이달 중순 각각 6.1%, 4.2%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서울-광주 구간이 1만5천원에서 1만6천100원으로 1천 원 오르고 우등 고속버스는 2만2천



###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출판·자료 전시회

찾아서'를 주제로 출판 및 자료 전시회를 가졌다. 연구단은 창립 이후 지난 6년간의 연구성과 및 각종 학술자료와 해외 수집자료 등을 전시했다. 전시회는 9일까지 이어지며, 오는 28~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도 열린다.

/위저량기자 jrwi@kwangju.co.kr

400원에서 2만3천7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목포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1만7천600원에서 1만8천700원으로, 우등 고속버스 요금은 2만6천200원에서 2만7천7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 2월에는 서울-광주 일반 고속버스 요금의 경우 1만6천900원으로 지금보다 1천800원이 오른다. 우등고속은 2만5천100원으로 오른다.

서울-목포 일반 고속버스는 1만9천700원으로, 우등 고속버스는 2만9천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 조정되는 운임과 요율은 상한선으로, 업체가 노선별로 유임을 시도해 신고하면 면허를 후적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울-광주 버스요금 1,800원 인상

### 내년 2월까지 올려 … 고속 12.1%·시외 9.7%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이 내년 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9.7%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유과와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2006년 8월 조정 이후 동결됐던 고속버스, 시외버스(직행·일반) 운임을 이달 중순 각각 6.1%, 4.2%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서울-광주 구간이 1만5천원에서 1만6천100원으로 1천 원 오르고 우등 고속버스는 2만2천

중·한 차례 요금을 올리고, 내년 2월 중 고속버스 5.7%, 시외버스 평균 5.3% 추가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인상분을 반영하면 고속버스는 지금보다 평균 12.1%, 시외버스는 9.7%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서울-광주 구간이 1만5천원에서 1만6천100원으로 1천 원 오르고 우등 고속버스는 2만2천

## ‘자금난’ 중형 조선소

### 국회 차원 지원 모색

주승용 의원 “16일 지식경제委 긴급 간담회 열것”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소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읍)은 8일 “금융위기 속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지역 조선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전남도지사, 관련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난 대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오늘의 국감

▲환경노동위원회=광주지방기상청(10시·기상청 회의실)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 3국으로의 비료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9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남해화학은 지난 1월 비료값이 24% 인상돼 농민들의 항의가 벌발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비료값이 62.9%

인상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8월에 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해화학은 지난 ▲2006년 71억 원 ▲2007년 28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올해 국제 원자재값이